

오늘의 말씀묵상

본문 : 로마서 6:1-11(현대인의 성경)

1. 말씀

- 1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?
- 2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.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?
- 3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?
- 4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.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5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.
- 6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에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.
- 7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.
-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.
- 9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으실 수 없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- 10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.
- 11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 있다고 여기십시오.

2. 관찰

-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?
→ _____
-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?

→ _____

3. 메시지

- 바울은 왜 “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어야 하겠느냐”라는 질문을 던졌을까요? (1절)

→ _____

- 바울이 말한 “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”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? (4-7절)

→ _____

- 나는 ‘옛 사람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? 나는 이 사실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? 나의 삶에서 옛 자아를 내려놓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부분과 아직 붙잡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?

→ _____

- 여전히 죄의 습관이나 유혹 앞에서 내가 쉽게 무너지는 영역은 무엇인가요?

→ _____

- 내가 일상에서 “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부름받았다”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?

→ _____

4. 적용

-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?

→ _____

- “죄에 대해서는 죽었고,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”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? 현실에서 어려움과 유혹을 마주할 때, ‘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음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

→ _____

- 5. **묵상 나눔**(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.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,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)

롬 6:1-11 (성화의 근거)

‘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’라는 성화의 문제를 다루는 본 절은,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함께 침례를 받았기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신분의 변화에도 여전히 옛 삶의 습관으로부터 자유 하기는 쉽지가 않고,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되어진 신분에 걸맞은 존재의 변화를 위해 분투하기를 요청하십니다.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, 애써 탈선하려 하지 않는 한 성령에 인도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. 문제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기뻐하지 않고 세속의 가치와 욕망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문제일 것입니다.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 하더라도, 지금 같은 어정쩡한 신앙으로 천국으로 옮겨간 삶이 과연 제대로 그곳에서 적응하며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을 지는 다소 부정적입니다. “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” 아멘!

6. 기도